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답례품 '돼지고기'

진안군, 답례품 선정·기부금 활용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진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을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가자들이 돼지고기 세트를 최고의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안군 공식 SNS를 통한 온라인 조사와 2022 홍삼축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부스에서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해 총 1,663명이 응답한 결과다.

응답자의 구성 비율은 55.4%가 전라북도 외 거주자였으며, 전라북도 내 거주자 24.5%, 진안군 거주자는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 39.1%, 40대 27.2% 20대 22.1%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답례품 상세 순위는 돼지고기 세트(15.8%)와 △홍삼류(15.5%)가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곡류(쌀, 잡곡) 13.2%, △수산물(인삼) 12%, △진안 고원물 온라인 상품권(10.6%)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또한 기부금의 활용처에 관한 질문에는 △취약계층 지원이 45.7%, △주민복지증진 16.6%, △청소년 육성 및 보호 14.4%, △주민편의시설 건립 12.1%, △문화예술보전증진이 10.7%로



진안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기부금 활용을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가자들이 돼지고기 세트를 최고의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진안홍삼축제 홍보부스 모습)

나타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차지했다.

향후 기부 시 기부금액에 대한 의향 조사를 묻는 설문에는 △10만원 미만 51.1%, △10만원 29.1%, △10만원~20만원 13.3%, △20만원 이상 5.9%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0% 이상이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의향을 보여 군은 10만원 이하 맞춤형 답

례품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춘성 군수는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다"며, "높은 참여율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활용에 있어 기부자와 생산자, 그리고 군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추계 홍삼·한방산업 심포지엄 개최

진안홍삼연구소,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 향상 전략 모색

진안홍삼연구소(김태영 소장)는 12일 진안 인·홍삼 및 특용작물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진안 인삼·홍삼 및 특용작물의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진안군이 주관하고 진안홍삼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홍삼 관련 종사자, 학계 전문가, 진안군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유관 기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태영 소장은 "진안홍삼연구소의 연구현황 및 추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구소 주요 연구성과 및 추후 연구계획, 진안군의 품질인증제도, 진안홍삼의 성분 및 우수성 등을 소개했다.

이어 진안홍삼연구소 손호연 이사는 "하우스를 이용한 친환경 인삼재배 방법"을 주제로 인삼 유기농 재배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연운열 센터장은 "인삼가공을 위한 High-Tech 식품공학 기술"을 주제로 초고압 기술의

장점 및 이를 활용한 홍삼의 제조과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건국대학교 이승열 교수는 '고려인삼 신소재 개발과 효능 및 홍삼박 새활용'의 주제로 진토닌 및 홍삼박의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장광진 교수는 '진안 치유약초 생산과 이용'을 주제로 고품질 약초 친환경 관리 및 약초의 이용과 치유에 대해 발표했다.

(주)웅진식품 중앙연구소 김호빈 박사는 인·홍삼 제품개발 및 유통전략에 대해 향후 제품개발 방향과 유통시장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인삼·홍삼 관련 종사자, 학계 전문가, 군 관계자가 인·홍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안홍삼연구소 이사장인 전춘성 군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살피고 반영하겠다"며 "인·홍삼 및 특용작물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인삼 재배농가와 가공업체에 고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요"

진안군은 농작업,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 및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 발생하는 신증후군출혈열 등 열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찌르거나 시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4~15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열성질환이다.

군 관계자는 "가장 좋은 예방수칙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농작업 등 야외활동 중에는 풀 위에 앉거나 옷 벗어 놓지 않기, 작업 전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귀가 후에는 옷을 충분히 털어낸 뒤 바로 세탁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 11일 최훈식 장수군수가 관내 국도 관련 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았다.

최훈식 장수군수, 발품행정 나서

국도 관련 현안사업 해결 등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지난 11일 최훈식 장수군수가 관내 국도 관련 현안사업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았다.

이날 최 군수는 진안군 진안을 구룡리에서 장수군 천천면 송송리를 거쳐 장수읍으로 이어지는 국도13호 및 26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의 국가사업 반영을 비롯해 현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장수~장계 도로시설개량 공사의 신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최 군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만나 군민의 안전확보와 교통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특히, 장수군은 전라북도청 소재지에서 시·군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 중 유일하게 미개량 왕복 2차로로 남아있는 도로기반시설투자 소외 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동부신약권 개발지원 등을 고려해 국도13호선 및 26호선의 차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 반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은 물론 장수군을 방문하는 도로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지속발굴하고 공직자들과 함께 발로 뛰며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무주군이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을 통해 인재육성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미래세대들에게 배움의 길을 터주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인재육성사관학교는 무주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업 성취 의욕을 높이고 실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중 운영하고 있다.

무주교육발전장학재단은 올해 겨울학기 인재육성 사관학교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51명의 중학생 2학년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을 선정했다.

재단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달중 학부모설명회와 기숙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학생들의 희망하는 기숙학원을 통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억원을 확보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에너지원 설비를 특정 지역의 주택·공공·상업 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엄격한 평가를 거치고 사업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전국 지자체의 신청량이 많아 경쟁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설천면 작은목욕탕 운영 재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무주군 설천면 작은목욕탕이 지난 11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무주군 설천면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보일러 이상유무 확인과 수도 등 시설을 점검했다.

설천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목욕탕 대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원은 지역 내 주민들에게 코로나19와 독감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다.

또한 주 이용객이 노령층임을 감안, 10월 말까지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탕 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운영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작은 목욕탕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남녀 요일 지정제로 운영된다.

오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월·수·금요일에는 여자, 화·목요일에는 남자가 이용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무료 배부

무주군이 코로나19와 독감 등 시유행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료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역 내 주민들에게 군이 비축하고 있는 방역물품(마스크) 배부로 코로나19와 독감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다.

군에 따르면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요양원·장애인시설 14개소 551명, 저소득 독거어르신 1,407명, 모두 1,958명에게 개인당 25매(KF-94)를 배부한다.

군은 12일부터 20일까지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 어르신들은 시설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저소득 독거어르신들의 경우 읍·면 생활관리사를 통한 마스크를 전달하고 방역수칙도 안내한다.

군은 앞서 마을담당관 공직자들을 통해 지난 2020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